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왼쪽에서 두 번째)이 주루 훈련을 하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격려를 하고 있다.

/플로리다=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주장이자 에이스... 책임감에 대처하는 양현종의 자세



첫 불펜 피칭... 모든 구종 점점 훈련 뒤엔 야수들 훈련도 관전 "동료들이 잘 해줘 믿고 간다"

토론토 스카우터 찾아와 관심 올림픽 앞·시즌 뒤엔 FA 자격 "게임만 집중해 부담감 이겨낼 것"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에게 올 시즌 타이틀이 하나 더 붙었다. '캡틴'이 양현종의 올 시즌 또 다른 이름이다. 양현종은 최근 KIA의 주장으로 선임돼 팀 전면에 서게 됐다. 그동안 KIA에는 '주장-야수'라는 압도적인 틀이 있었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양현종이 야구는 물론 팀에 대한 애정까지 '특급 선수'라는 점에 주목했다.

팀을 넘어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약을 해온 양현종에게도 주장은 특별한 이름이다. KBO리그 최고의 투수로서 영광을 모두 누린 양현종에게 아직 상상만 해도 좋은 순간이 남아있다. 바로 주장으로 팀 우승 순간에 서는 것이다. 양현종은 "그건 영원히 남는 것이다. (김)주찬이 형이 너무 멋있고 너무 고맙고 그런 게 우승팀 주장이라는 것이다"며 "제가 주장이 돼서 좋은 팀 성적이 난다면 그 영광은 아마어마할 것 같다.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주찬이 형의 역할을 봤기 때문에 대단히 영광스러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주장으로 특별한 순간은 꿈꾸지만, 실제 역할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게 양현종의 이야기다. 양현종은 "야수 형들이 항상 잘 해주니까 부담감은 없다. 주장이 됐다고 바뀌고 그런 것은 없다. 야수 쪽은 (김)민식이, (백)용환이, (유)민상이한테 맡기면서 하겠다"며 "틈 나는 대로 야수 운동하는 것도 보고 있고,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한다. 요즘 추세가 야수와 투수가 따로따로 운동을 하니까 대화 등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대로 양현종은 자신의 훈련이 끝난 뒤, 쉬는 시간 틈틈이 관람객이 돼 야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양현종이 주장으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소통'이다. 양현종은 "앞서 (안)치홍이, (김)주찬, (이)범호 형이 주장으로 잘했다. 선수들 간에는 특별한 것 없이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코치님과 선수들 사이에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새로 오신 코

치님도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편하게 다가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양현종은 팀의 에이스다. 양현종은 에이스로도 캠프를 잘 소화해내고 있다. 19일 양현종은 이번 캠프 첫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27개의 직구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하나씩 구사한 양현종은 "시즌 때 품이랑 시즌 때처럼 붙이 나오게끔 던졌다. 아픈데도 없고 최대한 시즌 때처럼 던지면서 공 가는 것, 공 끝을 중요시했다. 첫 스타트를 잘 끊었다"며 "지난해보다는 페이스가 빠르고 조바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 작년에는 급하게 준비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준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똑같은 시즌'을 이야기하지만 양현종에게 불리는 시즌은 특별하다. 첫 불펜 피칭을 소화한 이날에도 류현진의 소속 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고위 관계자 두 명이 KIA 캠프를 찾아 양현종을 지켜봤다. 시즌 중반 도쿄 올림픽이 있고, 시즌이 끝난 뒤에는 FA 자격으로 해외 진출을 노릴 수 있게 된 만큼 양현종은 올 시즌 많은 시선을 견뎌내야 한다. 양현종은 "최대한 의식 안 하려고 하는데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내가 이겨내야 한다. (스카우트들에게)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잘 보이기 위해 던지는 것은 아니다. 팀에 보탬이 되기 위해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게임만 생각하며 부담감이 줄어 들 것 같다"고 양현종답게 시즌을 준비하고 풀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wool@kwangju.co.kr



훈련은 짧고 굵게 '우린 ML 스타일'

반나절이면 공식훈련 끝... 오후엔 개인별 맞춤 자율 훈련

짧고 굵게 그리고 유효하게. KIA 타이거즈는 미국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에 캠프를 차리고 2020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게 새로운 캠프다. 구단 첫 외국인 감독인 맷 윌리엄스를 필두로 코치진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캠프 장소도 달라졌다. 앞서 일본 오키나와를 캠프지로 삼았던 KIA는 올 시즌 미국으로 장소를 옮겨 2020시즌 담금질을 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 속 캠프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외국인 사령탑에 맞춰 캠프도 '메이저리그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짧고 굵게'가 가장 큰 변화다. 오전 8시 30분 테리 파크 스포츠 콤플렉스로 출근하는 선수들은 미팅과 개인 보강 훈련을 한 뒤 오전

10시 그라운드에서 나와 공식적인 훈련을 시작한다. 그리고 KIA 선수단은 늦은 점심을 먹은 뒤 경기장에서 철수한다. 이후 웨이트 일정을 소화하기도 하지만 반나절이면 KIA의 공식 훈련이 끝난다. 효율적으로 운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졌다. 선수들은 그라운드 4면과 불펜장, 타격 연습 시설 등을 갖춘 캠프지에서 포지션 별로 집중해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함께하는 훈련 시간은 줄었지만 개인 훈련 시간은 늘었다. 치열해진 경쟁 속 생존을 위해 선수들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구단도 선수들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해외 전지훈련에서 선수들이 가장 짝하는 고충은 '음식'이다. 하지만 이번 캠프에

서 KIA 선수들은 매일 '집밥'을 먹고 있다. KIA는 지역의 유명한 한식당을 사전에 섭외해 케이터링으로 선수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선수들은 물론 윌리엄스 감독의 입맛에도 딱 맞는 점심이다. 김치를 즐겨 먹는 윌리엄스 감독은 매일 다르게 나오는 '국'을 특히 좋아한다. 19일 점심에는 동태국이 나왔고, 지난주에는 냉이국이 점심 메뉴로 등장했다. 코치진은 선수들이 즐겁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고 있다. 큰 소리로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며 훈련을 독려하고, 장난도 치면서 경기장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그렇다고 분위기가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선수들은 스투머없이 질문을 하면서 몸은 물론 머리에 도 야구를 채워가고 있다.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들에게 매일 에너지를 주는 게 나의 역할이다. 시즌을 보내다 보면 힘들어할 때가 있을 것인데 내가 그럴 때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 역할이 행복하다. 야구장에 있는 자체가 좋다"고 언급했다. / wool@

날개 꺾인 '손'

애스턴빌라전서 팔 골절 이번주 수술...재활 최소 2개월 소요될 듯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50호골 고지' 돌파와 더불어 프로 데뷔 이후 첫 5경기 연속골로 필립 날던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부상 악재에 발목을 잡혔다. 손흥민은 지난 16일 펼쳐진 애스턴 빌라와 2019-2020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추가 시간 2-1을 만드는 득점에 이어 후반 추가 시간 3-2 승리를 이끄는 '극장골'을 쏘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반전 키오프 30초째 텔리 알리의 후방 패스를 받아 오른쪽 측면에서 빠르게 역습에 나서던 순간 애스턴 빌라의 중앙 수비수 예즈

리 콘사와 강하게 충돌하며 넘어졌다. 손흥민은 쓰러지는 순간 오른쪽 팔로 땅을 짚었다. 전반전이 끝나고 팀닥터에게 오른쪽 팔 부위 통증을 호소한 손흥민은 후반에도 그대로 출전했다. 후반 추가 시간 결승 골을 책임지면서 팀의 승리를 끌어냈지만 오른쪽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얻고 말았다. 손흥민은 지난 2017년에도 오른쪽 부상으로 한동안 고생했다. 그는 2017년 6월 치러진 카타르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원정에서 전반 30분

에 공중볼을 다투다 착지 과정에서 오른쪽 팔로 땅을 짚은 뒤 고통을 호소한 뒤 교체됐다. 진단 결과 '오른팔 전완골부 요골 골절' 판정을 받은 손흥민은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그라운드 복귀까지 2개월 가까이 소요됐다. 손흥민의 부상은 토트넘에도 큰 악재다. 원톱 스트라이커 자원이던 케인이 지난 1월 햄스트링 수술로 4월이나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케인의 뭇가지 뛰면서 득점포 행진을 거듭해온 손흥민까지 오른쪽 골절로 수술을 받게 돼 공격력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겼다. 더군다나 토트넘은 당장 한국시간 20일 오전 RB 라이프치히(독일)와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홈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해결사' 손흥민이 빠지는 대형 악재를 떠안았다. 모리뉴 감독으로서 케인과 손흥민의 '차·포'를 때리고 리그 후반 일정을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됐다. /연합뉴스

어린이 호랑이들 모여라

KIA, 어린이·T클럽 회원 모집...야구교실 참가 기회 등 혜택

KIA타이거즈가 2020시즌 어린이 회원과 T클럽 회원을 모집한다. 어린이 회원 모집은 키즈(5-9세)와 유스(10-13세)로 나누어 20일부터 진행된다. 어린이 회원에게는 타이거즈숍 이용시 상품가 10% 할인과 정규시즌 구단 행사 및 어린이 야구 교실 참가 기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키즈 회원 가입비는 8만원으로 선착순 500명을 모집한다. 키즈 회원에게는 회원 카드와 KIA타이거즈 유니폼과 모자, 미니 호걸이 가방, 호걸이 짐색 등이 기념품으로 주어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스 회원도 선착순 500명을 모집하고 가입비는 9만원이다. 유스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카드와 유니폼, 모자, 호걸이 짐색, 호걸이 필통, 호걸이 인형 고리 등의 기념품으로 준비됐다. KIA는 28일부터 홈페이지 T클럽 회원도 모집한다. 1년 회원제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T클럽 가입비는 2만원, 모집인원은 300명이다. T클럽 회원은 KIA 홈페이지 내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으로 팬북과 호걸이 휴대용 그립톡을 받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